민주 단체장들 "지방공약 '空約' 안되게 임기 내 꼭 추진해야"

강운태 광주시장 등 104명 성명 발표

낙후도·장기비전·균형발전 고려해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9일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지역발전 공약사업을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운태 광주시장(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10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말았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역발전 공약사업을 임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지역공약을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아 그야말로 지역공약(空約)이란 말을 듣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지난 5일 지역공약 신규사업 중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보류하고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공약이행을 지연하겠다는 엄포이고,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 착공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 공약사업이 다음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경남 간 한려대교 건설과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 삽을 뜰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반영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적극 활용 계획 철회도 주장했다.

이들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현재 인구를 감안한 경제성을 분석하겠다는 의도로 이는 지역의 불균형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규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을 감안해 추진하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낙후도, 지역민의 열망,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민간회사를 배부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며, 특히 광주 제2순환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13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제적인 민간 투자회사 맥쿼리의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일 전국 17개 시·도의 106개 지역공약과 이를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공약은 각각 7개가 포함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러 카잔 U대회에 '광주의 빛' 전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운태)가 지난 6일부터 2013하계유니버시아드가 열리고 있는 러시아 카잔 선수촌 내 메인인터내셔널센터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차기 개최지인 광주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광주U대회와 남북 단일팀 구상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남북단일팀 구성기원 메시지 작성, 마스코트 누리비와 사진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완도 고속도로 구간 나눠 타당성 재조사

전남도·완도군, 국토부 협의

김종식 군수 조기 추진 촉구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단계인 타당성 재조사가 수요가 많은 구간을 대상으로 우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구간의 수요가 적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구간을 우선 조사해 보자는 것이다.

특히 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최근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의 2014년 예산안에도 반영돼 사업 추진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구간 중 광주~해남 옥천(69.5㎞)에 대해 우선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전 구간인 광주~옥천~해남 남창(83.9㎞)의 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비용분석(B/C)은 0.72로 기준치 1에 못 미쳤다.

하지만 전남도는 수요가 몰리는 광주~옥천 구간의 B/C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인 0.8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식 완도군수는 국토부 등과 회의 자리에서 전남 중남부지역 및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사업 타당성이 높은 광주~강진 분기점~해남 옥천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잔여 구간인 해남~완도는 낙후지역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의사결정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우선 부여해 추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물류비 절감 등 연간 1200억원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서남해안과 제주도를 잇는 남북 2축의 물류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옥천 구간에 대한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고,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144억원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황우여 여당 대표 "지방공약 최선 다해 모두 추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9일 '지방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지역 SOC공약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 모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지방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만, 재정문제가 있을 수 있어 기재부가 완급과 선후를 정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도 어찌하기 힘들다"며 "근본적으로는 공약을 만들 때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대선공약이고 이미 당론으로 정했으며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시행했다"며 "다만, 위헌성의 문제가 있어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인 만큼 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는 어렵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며 3~4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정당공천폐지제까지 당 정치쇄신특위에 논의를 7월까지 마쳐달라고 했고 8월까지는 당헌·당규 개정 마치도록 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형편이 허락되면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도 쇄신특위가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내년 예산·기금 요구액 365조…복지 100조 돌파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보건·복지·노동 부문은 11.3% 급증한 108조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교육 예산요구액은 60조원에 육박한다. 두 분야의 예산이 총예산 요구액의 46%에 달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요구액은 12.9%나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364조7000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342조원)보다 6.6%(22조7000억원)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6.7%(16조3000억원), 기금은 104조7000억원으로 6.5%(6조4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11년의 6.9%, 2012년 7.6%보다 낮지만 지난해의 6.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번 예산 요구는 공약가계부 추진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의 요구가 많았다.

증액 폭이 큰 분야는 3~4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 2조8000억원, 행복주택 신규 공급 지원액 1조2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 2조2000억원, 4대 연금 급여 2조3000억원, 국가장학금 1조6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 9000억원 등이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요구액도 5조원에 달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 부분 예산 요구액이 58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7.1%(8조5000억원) 늘어나는 등 7개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요청됐다.

보건·복지·노동 등 분야도 11.3%(11조원) 늘어난 108조4000억원으로 1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각각 7.4%, 연구·개발(R&D) 5.7%, 공공질서·안전 5.6% 등이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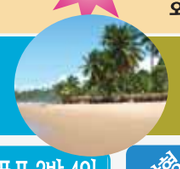
갈수록 왜이러니, 진짜?!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무안 – 심양전세기 [7/26~9/30 매주 월,수,금]
심양 / 백두산[서파] 5일[월]
일급 1,090,000 특급 1,190,000 불포함 : 유류세(₩86,000), 기사&가이드 팁
심양/백두산[서파/북파] 6일[수/금]
일급 1,190,000 특급 1,290,000 불포함 : 유류세(₩86,000), 기사&가이드 팁
무안공항에서 동방항공으로 떠나는 상해/구채구 6일
ALL포함 1,299,000

가족 ,친구 ,연인과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규슈 !! 일본 규슈 온천 관광
강추 히타 고급 별장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299,000~
출발일 7/26, 7/31, 8/10, 8/11, 8/18, 8/23, 8/28
※출발 가능한 인원 : 최소 6명, 최대 23명
※불포함 사항 : 선내식사 3식,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ALL포함!!
실속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야마가세 별장 온천 즐기기 4일 399,000~
품격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전통료칸 야마가세 온천 즐기기 4일 539,000~
품격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텐보스 4일 629,000~
출발일 7/26, 7/31, 8/10, 8/11, 8/18, 8/23, 8/28
항공 규슈, 유후인, 벳부, 히타, 아소 +전통료칸 야마가세 온천 즐기기 3일 749,000~
오사카&와카야마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제일의 상업도시 오사카&아름다운 태평양과 환상적인 온천이 어울어진 와카야마!!
품격 ALL포함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동굴온천 4일 1,100,000~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필리핀여행
7월 25일부터 무안(=>)마닐라 직항 취항.(매주목,일요일 출발)
무안공항 출발 베트남 전세기
7/20,7/24,7/28,8/01,8/05,8/09
마닐라 3박4일(마팍따발사88온천) 준특급 778,000~ 특급 858,000~
특전 : 따가이따이 전망대, 스타벅스 음료, 발사투어[줄낚시, 스노클링,발사이용,바비큐], 88핫스프링, 특식1회,디스커버리투어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108,800), 기사&가이드팁(30$)
마닐라, 따가이따이, 팍상한폭포 3박 4일 준특급 799,000~ 특급 849,000~
특전 : 마닐라야간시내관광(맥주1병증), 열대과일시식특식1회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108,800), 기사&가이드팁(30$)
[Healing Manila]마닐라, 바탕가스 4박 5일 1,099,000~
특전 : 아일랜드호핑투어, 따가이따이관광, 오일맛사지1시간, 열대과일 시식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108,800), 기사&가이드팁(40$)
마닐라/보홀 4박 5일 준특급 1,149,000~ 특급 1,239,000~
특전 : 바라카삭호핑투어, 맛사지, 마닐라야간관광(맥주1병 증)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108,800), 기사&가이드팁(40$)
요란하지 않고 때묻지 않은.. 라오스 3박 5일 909,000~ 4박 6일 1,129,000~
불포함 :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카약킹사공팁,전신맛사지팁
인도양의 아름다운 눈물이라 불리는 미지의 섬!! 스리랑카 3박 6일 1,960,000
불포함 : 유류할증료, 여행지 카메라입장료(1~2$)
관광형 다낭+호이안+후에성 1,099,000~
불포함 : 유류세(140,000원), 기사/가이드 팁
휴양형 다낭+호이안 (아일랜드호핑투어 +스노쿨링) 특급 1,149,000~ 초특급 1,299,000~
불포함 : 유류세(140,000원), 기사/가이드 팁
골프 몽고메리C.C + 다낭C.C (주중기준) 특급 1,449,000~ 초특급 1,599,000~
불포함 : 유류세(140,000원), 기사/가이드 팁, 주말&공휴일 추가요금, 클럽식, 캐디팁
7/27,30,8/2,5 [단 4회!!] 무안-마카오/홍콩 4일 899,000~ 무안-마카오/홍콩/심천 4일 949,000~ 무안-마카오 4일 1,099,0000~
8/7,10,14,17 [단 4회!!] 무안-세부 4일 899,000~ 무안-세부 5일 999,000~
9/5 출발 확정!! ALL 포함!! 인천/연길 백두산 4일 1,050,000 불포함 : 개인적인 경비, 광주-인천 수송비
8/1일 단, 1회 무안-몽골 울란바토르 3박 5일 직항 1,599,000 불포함 : 유류할증료(₩82,900), 비자피(₩40,000)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26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유류할증료(₩22,000)
선박 목포-제주도 2박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셔틀버스포함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188,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48,000~
포함사항 : ALL포함, 장급(합숙기준)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